



홍건희 백응환 나지완

최고를 경험하라

KIA 홍건희·백응환·나지완 감독추천 올스타
15일 홈런 레이스·퍼펙트피쳐...16일 본경기



Baseball'을 슬로건으로 해 'Explore THE BEST, 최고의 경험을하라!'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의 '배터리' 홍건희·백응환이 생애 첫 올스타 무대를 밟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는 16일 서울 고척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6 타이뱅크 KBO 올스타전 추천선수 명단을 확정했다.

나눔 올스타의 NC 김경문 감독은 감독 추천선수로 헛터·홍건희·백응환·나지완(이상 KIA), 이재학·임장민(이상 NC), 김세현·김민성(이상 넥센), 조인성(한화), 신승현·히메네스·채은성(이상 LG)을 선정했다. 두산 김태형 감독이 지휘하는 드림 올스타의 추천선수는 심장민(삼성), 박희수·켈리·이재원·정의운(이상 SK), 박세웅·손승락·강민호·황재균(이상 롯데), 김재운·박경수·이대형(이상 kt)이다.

KIA에서는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통해 베스트 12에 선정된 김주찬을 비롯해 5명이 올스타가 됐다. 신입 외국인 선수 헛터와 함께 홍건희, 백응환에게는 첫 올스타 무대다. 또 LG 신승현은 데뷔 17년 만에 올스타가 되는 감격을 누렸다.

한화 조인성에게는 이번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11번째 올스타전이다. 조인성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역대 올스타전 최고령 포수 출장 기록도 세우게 된다. 롯데 강민호는 개인통산 10번째 미국 10년 연속 올스타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은 '#Explore-

15일은 올스타 프라이데이로 해서 KBO 퓨처스 올스타전과 올스타 선수들이 참가하는 퍼펙트피쳐, 홈런레이스 등 행사가 진행된다. 퍼펙트피쳐는 홈플레이트에 9개의 배트를 세워두고 공으로 배트를 맞춰 쓰러트리는 방식이다. 드림·나눔 올스타 양 팀에서 각각 야수 2명과 투수 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홈런레이스에는 드림·나눔 올스타 양팀에서 4명씩 총 8명의 거포가 참가하며, 7아웃제의 예선전을 거쳐 10아웃제로 결승전을 치른다. 올스타전의 전야제는 DJ배틀 프로그램 '헤드라이너'의 초대 우승자인 DJ김택의 디제잉이 어우러진 그라운드 파티로 막을 내린다.

KBO 올스타전은 16일 오후 3시 올스타 선수 30여 명이 참가하는 팬사인회로 막을 연다. 팬사인회 종료 후에는 번트왕 대결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팀 대항전으로 치러지며 각 팀에서 5명씩 총 1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번트왕 종료 후에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에 대원 100명이 올스타전을 축하하는 대견도 공연을 펼친다. 육군 장병 300명이 가로 70m x 세로 45m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태극기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오후 6시부터 올스타전 본 경기가 시작되며 경기 종료 후에는 우수팀과 미스터 올스타(MVP), 우수투수, 우수타자, 승리감독상 등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버티기'

“박태환 국가대표 자격 당장 주라” 판결에도
체육회 “CAS 잠정 처분 결과 보고 결정”
박태환 측 “CAS 결정 필요없다더니 말 바꾸기”
엔트리 마감 넘길뻔 정치적 비난·손배 가능성

대한체육회가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무리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정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동부지법 민사 21부(열기장 수석부장판사)는 5일 “해당 결정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처분과 전혀 무관하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동부지법 서삼희 공보판사는 “법원 판단이 CAS 처분에 영향을 받는 조건부 결정이었다면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이 결정은 CAS 처분이 나오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다’는 표현을 넣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박태환 측은 “박태환 선수에게 당장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주라는 취지”라며 “법적으로도 법원의 보전처분은 발령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는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체육회 측에서는 “CAS의 잠정 처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맞받고 있다.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판결을 내린 동부지법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체육회는 더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졌다. 박태환은 4월 말 CAS에 국가대표 선발에 관한 중재 신청을 한 바 있다. CAS 역시 올림픽 출전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인 8월 이전에 결과를 내기 위해 6월 또는

7월에 잠정 처분 결과를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CAS의 잠정 처분 결과는 법원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박태환 측은 “체육회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CAS 결정이 나오더라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언해왔다”며 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자 ‘CAS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한 체육회의 입장이 사실상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체육회가 이달 초 CAS에 잠정 처분 관련 답변서를 보내면서 “박태환 관련 사안

은 중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예 CAS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인 8월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부지법 역시 “법은 이미 가처분 전부 인용을 통해 박태환이 국가대표 결정 사유가 없고, 리우 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까지 판단했는데 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이므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만일 체육회가 시간 끌기를 통해 엔트리 제출 마감일을 넘길 경우 국가 기관이 법원이 명령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비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박태환의 국가대표 탈락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체육회는 CAS 중재를 위해 외국계 로펌과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안 메이저리거 희비



추신수 7호 홈런...4경기 연속 장타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리그 정상급 좌완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상대로 시즌 4번째 리드오프 홈런이자 시즌 7호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는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계속된 보스턴과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1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프라이스를 상대로 중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는 프라이스의 조구 바깥쪽 꺾힌 코스의 92마일(약 148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는 129m. 올 시즌 4번째이자 개인 통산 20번째 리드오프 홈런이었다. 그중 2개가 프라이스를 상대로 뽑아낸 것이었다. 추신수는 지난 달 25일 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도 1회 프라이스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낸 바 있다.

추신수는 2회초 1사 1루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프라이스의 94마일(약 151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전안타를 기록, 시즌 8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완성했다.

추신수는 4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마지막 히

스윙 이후 불편한 표정을 지은 추신수는 5회말 수비 때 노마 마지라와 교체됐다.

텍사스 현지 매체는 “추신수가 등 경직 증세로 교체됐다”고 전했다.

추신수는 홈런 한 방을 포함해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이날 경기를 마쳤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60에서 0.272(103타수 28안타)로 상승했다. 4경기 연속 장타와 13경기 연속 출루 행진도 이어갔다. 텍사스는 3-2로 맞선 9회초 보스턴 마무리 크레이그 킴브렐로부터 4점을 추가로 뽑아내고 7-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강정호 '성 스캔들'



미국 시카고 경찰이 코리안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시카고 경찰청 케빈 쿼드 대변인은 6일(이하 한국시간) “현재 강정호를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범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며 “강정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쿼드 대변인은 신고자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성별 여성, '나이 23세'라는 사실 외에 인종 또는 출신국 등 상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해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강정호 사건’은 미국 유력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 신문은 “강정호가 지난달 시카고 컵스와 경기를 위해 시카고를 찾았다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강정호는 지난달 18일 시카고 도심의 웨스턴 호텔로 해당 여성을 불러 술을 먹인 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밤블’이라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강정호가 호텔로 불러 술을 권

美 경찰, 성폭행 혐의 수사
강정호 대타 안타 속 ‘침묵’

했고, 이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웨스턴 호텔 인근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 부속 병원을 찾아 성폭행 피해 증거 채취를 위한 검사를 받았고, 열흘 후인 지난달 말 경찰에 신고했다.

강정호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 하지만 파문은 이미 커졌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시카고 경찰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구단 사장 역시 “강정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걸 확인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했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다만 이 시간 이후로 구단과 선수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 앞선 9회초 1사에서 대타로 등장해 중전 안타를 쳤다. 하지만 혐의가 확정되면 사법 처리에 앞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015년 8월 22일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노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 방지 협약’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메이저리그는 대체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건이 일어나면 사법 처리가 나온 뒤 움직였지만 이후 어느 정도 혐의가 밝혀지면 사무국이 먼저 나서, 중징계를 내렸다.

여자 친구를 폭행한 의혹을 받은 아롤디스 체프먼(30경기)과 아내를 폭행한 호세 레예스(51경기), 여성을 폭행한 예트르 올리베라(82경기)가 중징계를 받았다. 체프먼과 레예스는 상대가 고소를 취하해 법적인 처벌을 면했음에도 사무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강정호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방치 협약 발표 후 처음 ‘성폭력’으로 처벌받는 선수가 되는 불명예를 안는다. 사법 처리를 피하더라도 사무국이 징계를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강정호는 현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도 없었다. /연합뉴스